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에 잠깐이라도 살아남아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유희와 타락의 악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모든 더러운 것과 남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2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3호 2011년 10월 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도덕적 위기 심각 “바른 일 행하자”

크리스천포스트, 척 콜슨 목사 주도 “Doing the Right Things” 운동 소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 에쉬번에서 소위 “윤리적 예배”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과 미국인 모두가 “바른 일을 행하자”(Doing the right thing)는 운동이 발진됐다.

바로 감옥선교회(Prison Fellowship)의 창립자인 척 콜슨(C. Colson)은 미전역에서 동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몰려 온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미국 사회의 위기는 바로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며 경제적 위기 현상 역시 도덕적 불감증에서 온 병폐이기에 모두가 윤리적 개혁을 일으키는 풀뿌리운동의 주역이 되자고 역설했다.

척 콜슨은 닉슨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으며 워터게이트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석방된 후 감옥선교회(Prison Fellowship Ministry)를 창립했으며, 35년간 113개국에서 사역하면서 교도소의 쇄신과 재소자의 재활훈련을 해왔고, 십여 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 따라서 복음주의 진영의 중도 노선에서 빌리 그레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는 2009년 촉발된 경제 위기 현상 역시 바로 미국인들의 도덕성 결여와 윤리 의식의 부재가 바로 맘몬만을 숭상하는 타락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들이 먼저 바른 일을 행해야만 미국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주장해 동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다가 많은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이번호에 동 운동을 발전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전격적으로 에쉬번 현장에서 동 운동의 창립과 그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다(Christians Launch ‘Doing the Right Thing’ Movement).

먼저 이날 콜슨은 미국 사회가 소수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비판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관여한다. 물론 우리는 정치를 포함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코 앞에서 서구 세계와 미국에서의 문화적 붕괴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수호하기도 바쁜 형편이다”라고 콜슨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미국인들 대부분이 소위 “문화적 엘리트”들의 의견이나 결정에 무조건 따라가며, 심지어는 바른 일을 보지도 행하게도 하지 못하는 장애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전횡과 의견에 강요받지 말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며 미국을 병들게 하는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결여된 도덕적 용기를 천명하고 발현해야 한다고 콜슨은 강조한다.

포커스온더패밀리의 “진리 계획”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델 테케트(Dell Tackett)는 콜슨이 지적하는 미국 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에 편승한 상대주의의 위험성을 부연한다. 즉 상대주의가 어느새 미국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 관용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익명성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



지난 25일 버지니아 에쉬번에서 열린 '바른일을 행하자' 운동 이 시작됐다.

가 너의 잘못 행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너 역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암묵적 동의가 바로 상대주의라는 계약의 공식이 돼버렸다.

결국 미국인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도 아무런 비판이나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도식에 빠져, 결국 남에게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당신 말이나 행동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도저히 말도 안되는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라는 해석이다.

동 운동의 공동 발기자인 에릭 메타사스(Eric Metaxas, 뉴욕타임

스 선정 베스트셀러, Amazing의 Grace와 Bonhoeffer의 저자)는 미국사회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이제는 조롱받을 정도로 상대주의의 망령이 얼마나 미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문화 안에서 진리(Truth)를 듣게 되면 어느새 벽이 가로 막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 즉 진리는 당신에게만 진리이지, 듣는 당사자들을 근본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 바로 자신들이기에 절대적으로 통하는 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가 사라진 미국사회의 현주소이다. (3면으로 계속)

남침례교 교단 이름변경 고려 중

라이트 총회장, 19일 운영위 회의서 표명

크리스체니투데이 보도 166년간 동일한 이름으로 현재 1,600만여 명의 신자를 거느린 미국 기독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가 교단 명칭을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브라이언트 라이트(Bryant Wright) 총회장은 지난 19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교단 소속 교회들이 더 이상 남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66년간 사용해 온 남침례회란 이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역 관련성보다 교세하락 극복위한 자충수 평가

남침례교단이 교단 명칭 변경을 고려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바로 지역과 교단 명칭의 불 관련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뉴욕이나 보스턴은 물론 와이오밍이나 아이다호, 미네소타에도 남침례 교단 교회에 출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단 명칭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나 관계가 적어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따라서 소위 “교단명칭변경연구위원회”는 먼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단 명칭을 모색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무장해 21세기 목회 사역의 대안으로 북미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동 교단 선교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남침례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호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25%의 응답자들은 “남침례교”라는 이름 때문에 동 교단 지역교회에 방문하거나 가입하기를 꺼린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세대들 중 40%는 동 교단 이름을 꺼려해 교회공동체 소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면으로 계속)



2면

상황에 맞는 리더십 발휘해야



3면

PBS, 강영우 박사 일대기 만들어



6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5)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4면

UN상정 팔레스타인 독립안 분석과 이에 따른 선교적 관점(상)



제37회 정기총회소집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37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 음

- ◆ 일시: 2011년 10월24일(월) 오전10시
- ◆ 장소: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총대파송: 교역자대표 1인, 평신도 대표 1인(사모는 평신도대표로 인정 안함)

◆참고사항:

1. 년회비 \$120.00
2. 당일 가입이 허락된 교회는 차기 회기부터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3. 모든 회원교회는 37, 38회기를 납부하시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4.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투표에 참가하시려면 반드시 10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선거인 등록을 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5. 회원의 권리는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등록에 의거하여 서기 호명시 출석이 확인된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6. 투표는 따로 마련된 투표실에서 합니다.

* 새로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교협 website 나 교협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선거인 등록방법: 교협 website, 교협 fax, 직접방문

* 선거인 등록처: 교협 website, 교협사무실

<뉴욕교협 제 38회기 정 부회장 임후보 등록 공고>

예비회장후보

이름: 노기승 목사
교회: 뉴욕새예수교회
교협: 현 감사, 협동총무, 장애인분과위원장

이름: 양승호 목사
교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교협: 협동총무, 분과위원장다수역임, 지도자컨퍼런스 준비위원장

평신도부회장 후보

이름: 황규복 장로
교회: 풍이일랜드 성결교회
교협: 현교회협의회이사장

목사부회장 후보

이름: 김종훈 목사
교회: 뉴욕에일장교회
교협: 현 예배분과위원장, 유년분과, 선교분과위원장 역임

이름: 이재덕 목사
교회: 뉴욕사랑의교회
교협: 총무, 사무총장, 사업분과위원장

감사후보

이름: 김명옥 목사
교회: 뉴욕에은교회
교협: 현 감사, 협동총무 (가나다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4428/Fax.(718)321-0105
E-mail:nyckcg@gmail.com / www.nyckcg.org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운준 목사 서기 및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



시론

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교교회)

인생의 행복은 인간관계가 좋을 때에 경험하게 된다. 교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즐거움이 생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에 달렸다. 성공적 인간관계의 법칙은 ①남의 이름을 기억하라 ②무뚝뚝하게 대하지 말라 ③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 ④칭찬을 아끼지 말라 ⑤남의 기분을 무시하지 말라 ⑥섬기는 정신을 잊지 말라 ⑦의심하지 말라 ⑧용서를 포기하지 말라 ⑨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⑩그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야 ⑪뽀내지 말라 ⑫고만하지 말라 등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좋으면 좋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런데 현재보다 더 가깝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려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움직이고 사과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더구나 인간관계에서 그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면 더욱 그리 해야 한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불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불구자인 인간, 즉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새로워져야하고 치료 되어야하고 현재의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에 놓인 그 사람을 향하여 동작을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2장1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일어나서라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침대를 들고 가는 동작의 명령과 걸어가고 하는 움직임을 명령하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을 움직여 보고 다리를 움직여 보는데서 기적이 시작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교훈인 것이다.

인생 문제의 해결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서 출발됨을 예수님은 수많은 장소에서 증거 하셨다(막3:5).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 서로 서먹서먹할 때나 사이가 나빠졌을 때나 오해하고 있을 때나 주변의 상황에 의하여 두 사람의 간격이 벌어지고 악화되었을 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태도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나쁜 감정을 일으킬 뿐이다. 나와 나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만이 인간관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진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곧 그를 찾아가서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선입관이나 나쁜 감정이 있으면 깨끗이 씻고 미소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의 마음속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존 로크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말하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보다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행동은 더 중요하다. 소포클레스는 "하늘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고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보다 먼저 행동을 하라. 말보다 행동이 더 힘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기에 탈무드에 보면 "착한 말은 착한 행동보다 약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추측과 상상에서 비롯된 확증없이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폭언을 일삼고 무례를 범하고 일시적 감정의 자극을 받아 못할 짓을 하고, 사람답지 못한 언동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나 자신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그 상대는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가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상황에 맞는 리더십 발휘해야!

국제제자훈련원, 폴 스티븐스와 필 콜린스의 "평신도를 세우는 리더십" 중 4가지 소개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분주하게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교회에서는 반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목회자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서 어깨에 짊어지고 지쳐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목회자가 혼자서 일을 다 하면서 평신도들을 단지 목회의 보조자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의 일은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서 이뤄져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유능한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목회자는 평신도를 각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구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고 양육해야만 한다.

때로는 새로 부임한 목회자의 스타일이 새로운 교인들을 많이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그 스타일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과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 충돌의 불씨가 썩듯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 목회자는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특히 다른 상황의 교회로 옮기면서 그곳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준비

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사람을 상품처럼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도와주고자 한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사랑과 화목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명을 소홀히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창조성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리더십



있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는다. 상 필요한 인물이다. 결국 여러분 자신은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지도자들이 종의 자제로 총체적 관여 스타일 지도자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는 사명 완수와 사람 사이에 본질적으로 모순

문제해결과 성장 위해서는 사명이 우선 화목한 분위기 필요할 땐 사람이 중심 전체적 참여 유도 위해선 소극적 대처 총체적 타입은 사명 성취에 대의 생각

된 리더는 각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명 중심의 지도자

이 유형의 리더는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전체의 이익이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리더는 사람을 돕는 것과 사명 사이의 갈등에서 사명을 선택한다. 이런 스타일은 때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데 적합한 스타일이다.

사람 중심의 지도자

이 유형의 리더는 사람을 돕는 것과 사명 사이의 갈등에서 사람을 선택

스타일은 어떠한 문제로 떠나간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기도 한다.

소극적 참여 스타일 지도자

이 유형의 리더는 사람과 사명 모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때로는 전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따뜻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성도의 입장에서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의견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만 주장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성도들을 도울 수가 없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미 모임이 성장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추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특성은 융통성이 있고 강인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육을 쫓지 않고 대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느리며 사람을 도울 때 깊이 돕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모임의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항

상시키고자 하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 상이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이것을 대체할 스타일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리더는 한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적당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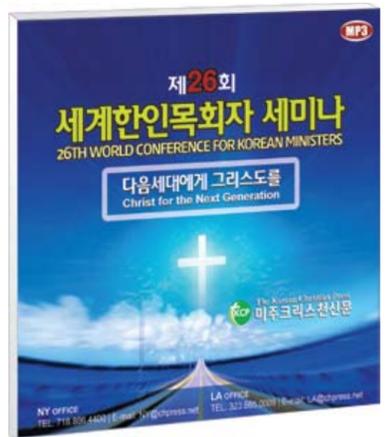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2차 총회서 과반수이상 지지 받아야

라이트 총회장, 19일 운영위 회의서 표명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다른 교단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남침례교단 지역교회들은 교단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남침례교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면 교단 이름에서 기인하지 않으나 우려하고 있다.

샘포드대학교의 비손신학교 학감, 티모시 조지(T. George)는 남침례교의 교단 명칭 변경 등장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남부라는 의미는 남북전쟁 때부

최저를 기록했으며 교인 수도 4년째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 홍보전문가는 "긴 역사를 지닌 단체나 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현재의 이름을 지지하는 사

166년 사용...지속적 교단감소세 따라 연구팀 출범...21C 목회사역 대안기대

계속해서 동 교단은 교세 하락세를 나타내 2010년 교인 집계수가 33만2,321명으로, 이 수치는 195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동 교단이 교단 명칭 변경을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교단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1999년 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변경하자는 예비 투표가 실시됐고, 2004년에는 총회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는 안건이 55.4% 대 44.6%로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그때부터 교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알버트 몰러(A. Mohler) 남침례교신학교 총장은 "단일 주제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진 사건은 현재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해석할 정도로 동 교단은 교세 하락이 어찌

터 시작됐은 고유한 정서인데, 점점 더 미국의 역사에서 옛 것이 퇴색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문화적 전통에서 남침례교 마저 "남부적"인 의미에 상실하고 있다"며 "교회 개척이나 세계 선교에 있어 '남부적' 또는 '남부'라는 이름이 그 효용성을 다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SBC 리더들 중에는 이에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 중 한 사람인 스튜어트제 일침례교회의 대럴 오먼 목사는 "우리 교단의 이름 변경은 미래에 필요로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반대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도는 교인 및 침례자의 숫자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BC는 지난해 33만2천321명에게 침례를 베풀어 1950년대 이래

람들이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결론으로 "교단명칭변경위원회"가 수개월 내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명칭을 찾게 되면 2차에 걸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 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고 만약 동 위원회가 새로운 교단 명칭을 제안해도 총회 실행위원회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 총회 회의안으로 상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동 교단 총회 지도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칠 줄 모르고 성장 곡선만을 그려왔던 남침례교단의 교세 하락이다. 따라서 166년이나 교단의 본질과 정체성을 상징했던 교단 명칭마저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PBS, 강영우 박사 일대기 만들어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2000년 미국 저명인명사전, 2001년 세계저명인명사전에 수록

강영우 박사(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인생 스토리가 미국 공영방송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를 통해 제작된다. 현재 강 박사는 PBS측과 이메일로 영상 제작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강영우 박사의 스토리가 영상으로 제작되는 것은 1990년대 김혜수·안재욱 주연의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 이후 처음이며, 미국 공영방송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강 박사는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했지만, 서울맹학교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1972년 한국 장애인 중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도미했다. 서울맹학교 1학년 시절, 5년 늦게 시작한 학업으로 18세이던 강 박사와 여대생 1학년이던 지금의 아내 석은옥 여사가 처음 만났다.

강 박사는 보이지 않는 장애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앞세워 피츠버그대학에서 교육·심리학석사와 교육철학박사를 취득한 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이



후 1992년 한국 장애인 교육 및 재활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해 회장직을 맡고, 루스벨트재단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00년 미국 저명인명사전, 2001년 세계저명인명사전에 수록됐고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교학사)에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유엔 장애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냈으며 부시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장애

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다. 두 아들 중 첫째 강진석 씨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과의사, 둘째 강진영 씨는 미국 백악관 대통령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 to the president)으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한인들이다. 한편 PBS는 지난 7월 한식 프로그램 '한식쿠싱쇼', '김치 크로니클'을 연속 방영해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도덕적 위기 심각 "바른 일 행하자"

(1면에서 계속)

한편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운동의 잘 설명해주는 DVD시리즈가 이미 제작돼, 크리스천 가정들이나 교회 그리고 교도소에게 보급되고 있다. 그 내용은 계속 되는 경제적 위기, 가정들의 파괴, 탐욕의 만연과 부패가 소용돌이치는 미국 사회에서 폴슨은 미국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을 건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윤리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희망을 걸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바로 교회 문제의 뿌리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믿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있다고 폴슨은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 문제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진리를 치료로 대

체시켜 버렸다", 즉 오프라 쇼나 닥터 필과 같은 쇼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로 진리 대신 자신을 치유하는 적절한 실례이다.

결론으로, 기독교라디오 방송해설가이자 작가인 폴슨은 기독교는 '종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대답 외에 그가 기대한 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폴슨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을 인용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 신앙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유전공학이나 이슬람 파시즘, 더 공격적으로 변한 무신론과 같은 사회의 도전들을 만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하

다. 크리스천은 따라서 한 손에는 뉴욕타임스를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란 프리즘을 통해 인생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올바른 윤리적 개혁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크리스천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와 문화가 말하는 바를 비교해야 하며,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할 때는 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도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문화적 임무와 세상만사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져 있기에 먼저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 운동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흥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9월 27일(화) ~ 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 ~ 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 (213)393-3131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회자칼럼

나순규 선교사

(P&S Ministries)



또 하나의 깨달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난주일, 스무 명 남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비밀스런 나만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텅빈 예배당처럼 느껴지는 그 큰 공

간에서 예배하는데 내 마음 속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이라

도 하듯 텅 빈 공간을 통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 다녀온 이후로 시차가 해결되지 않아 영락없이 졸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깨우셨습니다.

여태 매주 그랬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봉헌을 하는 중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듯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달랑 돈 몇 푼 현금 외에는 드린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마음이 급하게 들었습니다.

드린 것은 고작 인쇄한 돈 몇 푼뿐, 나머지 내 삶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단단히 받아내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은 내 모습을 들었습니다. 열 개 중에 겨우 한 개 드리고 뻔뻔하게도 더 많이 복달라고 기도한 모습을 말입니다. 1주일 중

에 겨우 하루 주님께 드린다고 구별하고서도 단 한 시간 드리는 흉내만 내고는 나머지는 또 내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렇게 한심하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가 내게 큰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하루, 그 중에서도 단 몇 시간 주님 생각한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면 그 모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을 드리면서 큰 복을 받을 생각에 그분께 드리지만 정작 더 중요한 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못합니다. 내 모습이 그랬음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진리)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 예배는 한 두 시간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생활 즉 예배'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만족이요 우리 중심의 노래와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는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너무 깊이가 없습니다. 주제는 내가 받은 복이요, 그 복은 내가 쥐어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 하나

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내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되어 깨달음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 그날 예배는 제겐 너무 큰 감격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십니다. 삶 전체의 의미를 찾고 그 것 모두를 주께 드리고 있는 사람과 그들이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푸/른/초/장

신원규 목사

(라하브라삼성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성격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이 주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체질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기분대로, 성격에 맞지 않아서 시련에 들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체질로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 체질로 바꾸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으로서 인사하고 화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로 바꾸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느 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우리 가문

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영광으로 여기는데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주목하여 보면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 모든 성도가 누구인가요? 말씀을 두 가지로 상고해 보면 먼저 “있다”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재 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며,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므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므로 절대로 버리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므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한번 입한 구원은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인치심이란 왕이 여인을 내릴 때 왕의 반지로 광 짙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 받은 백성은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어서 그 약속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헬라인, 유대인, 인종을 초월하여)를 믿는 그 모

든 사람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 앞에는 ‘그’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그 모든 성도에게 그 영광을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받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 1-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영광을 주리라” 하시며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사람은 누구이며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시편 149:1-9 절에서 제시하십니다. 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고 치며 춤을 추고 삶의 현장에서 흥겹게 사는 권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침상에서 찬양합니다. 밤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권리가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들에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어떠한 역경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찬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사람은 캄캄한 인생의 한 밤중을 만났을 때에도 찬양합니다. 세상의 거칠고 험난한 어두운 밤에 우울과 낙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찬양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을 깨어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바로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악의 세력을 결박하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악하고 어두운 세력을 결박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뛰어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저의 목회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의 눈물의 기도가 삶에 꼭 필요합니다. 당대에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 후대는 반드시 잘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더 나아가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시편 149편 1-9절

1세 부모들은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1세대는 2세, 3세에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계승해주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에게 뛰어나는 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하며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체질이 서로서로 할렐루야! 아멘! 으로서 화답하고 새롭게 변화할 때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여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로스케올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침례신학 대학을 졸업하시고,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학위 증명서1부 3. 졸업 증명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추천서 (출신대학 교수 1분, 침례교단 목사 1부) 6. 설교 CD 1개

제출 기한: 10월 31일 2011년
제출처주소: Greensboro Korean Baptist Church (GKBC)
613 Pompano DR, Greensboro, NC, 27410
기타문의: 전화 804)691-1165, 336)508-6191
E-mail: gkbchurch@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청빙 위원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초빙

1. 초빙분야

- 분야 : 신약신학, 실천신학(설교학전공),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선교영어학

- 인원 : 각 1명

2. 지원자격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영어강의가 가능한 자.

3. 접수

- 기한 : 2011년 10월 26일(수) 17:00 까지
-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무처
- 문의 : 031-770-7723

4.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함.
- 해당분야 자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ts.ac.kr) 참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 ACTS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을 개혁하라(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우리 부모세대는 정적(靜的)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동적(動的)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생 스스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스스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지식, 즉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지식, 삶과 태도를 바꾸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부모들이 학교 다닐 때, 과학시간에 전기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전기를 발명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설명으로 듣고 에디슨이 고안했던 그 방법대로 한 번 해보고 또는 구경하는 것으로 전기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저 이해하는 정도이지 창조적인 학습활동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한 교실에 여러 실용 테이블이 있고 몇 명씩 그룹을 구성하여 실험을 하게 합니다. 전기를 생성시키기 위해 먼저 소재선정고 작업 계획부터 실험까지 스스로 고안하고 실행하게 합니다.

물론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수업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자이가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발달의 격차로 생각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에 먼저 망설이게 되고, 정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

중요하지한 전문성이 없는 교육은 큰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Doing'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찬양도 울동을 하면서 하고 설교도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실의 모든 영역과 벽면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커튼이 열려져 잘 준비되어진 미술실이 있었습니다. 그 날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받은 감동을 바로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구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워 다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아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안된 교육방안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듯 Doing을 먼저 하면서 Thinking 하게하고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을 잠시도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집중력은 물론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교회가 좋고, 오고 싶고, 다음 주일을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후일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하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바꾸어 갈 뿐 만이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인제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가가 교회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교육을 개혁하는데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과제

현실적인 교육과 영적인 기독교 가르침 사이에 균형 이뤄야 전문 커리큘럼 교육법 개발·단위학습교육·매주 평가회 필수

나오고 드디어 전기를 생성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에디슨들이 수없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발견하게 하면서 체험을 통해 살아 있는 지식으로 또 다른 발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이제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비단 자연과학만이 아닙니다. 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류 문화에 관한 정신과학까지 그리고 예술교육이나 체육교육도 각 분야별로 리서치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정의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은 매우 능동적이고 행동하며 사고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호에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교육방법을 'Doing First Thinking Nex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진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긴 시간 동안 생각하고 난 후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교회교육을 받고 자란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망설이는 시간이 길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양육 받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교육과 영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에 너무 큰

리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애늬움'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오히려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고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키워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열정이 넘치는 전도사님이 유치부를 담당하였는데 주일학교 설교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움직이고 옆에 아이들과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경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함소리에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1분, 2분을 견디지 못하고 또 움직이고 옆 사람과 이야기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앉은 채 소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주일학교 끝날 즈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날 그 어머니와 전도사님과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은 열정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도

야 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역사적인 인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월로우크릭 처치를 리서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교육부였습니다. 앞서 가는 교회교육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년별로 예배실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거의 예배실에 의자가 없고 깨끗한 카펫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원형 계단식 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 벽면에는 연극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 찬양팀들이 중앙에 설치된 단 위에 올라 찬양을 인도하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울동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Skit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이어 설교시간에는 전도사의 전신을 다 활용한 묘사적인 설교와 이미 준비된 벽면에 게시된 그 날 주제를 찾아보게 하는 등 예수님을 아이들이 발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옆방으로 통하는

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부모세대가 세워 온 교회와 설교를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즈음 전화로 제일 많이 문의 받는 것은 교육전문가를 어떻게 찾는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인 목사님 파님들 중에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하나의 봉사자로서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교회교육의 전문가로 기용하고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부분은 담임목사님이나 교육목사님을 통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커리큘럼이나 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하고 단위학습 즉 매 주일마다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학습전개를 연구하고 교사들을 훈련하여 교사들로 맡겨진 아이들에게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매 주일 주일학교를 마치고 평가회를 통해 당일 교육의 성과와 시정할 부분들을 그때 그때 고쳐가야 아주 훌륭한 연간 교육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커리큘럼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적인 단위학습의 계획안과 자료구성과 실제학습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의 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교회는 지도자인 담임목사가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간혹 담임목사에 대한 이런 저런 말들이 돌기 쉬운데 평신도인 우리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목사님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어느 평신도

A: 교회의 담임목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쉬운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기도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담임목사의 직능은 설교뿐 아니라 교회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로서 보이는 지상 교회의 실질적 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목사의 위치는 교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의 사자란 헬라어로 토 양겔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별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른 손에 붙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시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평신도들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막중한 지리 담임목사, 기도해줘야

고 옥한흠 목사님이 담임목사에 대한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목은 "담임목사, 그는 기도해줘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글입니다.

"담임목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바꾼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는 몇 사람의 목사가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의 목사가 아닙니다. 전 교회의 목사입니다. 원래 만민의 연인은 고독한 법입니다. 담임목사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간교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고 울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뻐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밤낮 쫓기는 자리입니다. 한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설교자로서 주일 말씀을 듣기위해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신뢰를 못 받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무게를 결정합니다...우리는 담임목사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고 그가 승리해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의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 절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담임목사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영적으로 최선봉에서 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패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마귀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Joy Book & Church Supply Inc.

- 성경, 찬송가
- 기독교 서적, 주석류
- 모든 종류의 종교 잡지
- 영문서적 취급
- 신예성구(강대상 일체) 미주지사
- 성가대 및 각종 가운 취급
- CD, DVD 복사기, OHP
- 성경 컴퓨터 소프트웨어
- 세광음악출판사 미주지사
- 3M, TELEX 딜러
- 동시통역기
- 임직 창립 기념품 제작

인터넷서점

www.joyLA.com

조이기독교백화점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T.1-800-662-7282, (323)766-8793
F. (323)766-8796

뉴욕조이서적(전 한국서점)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T.1-800-662-7282 (718)762-1200

종교다원주의 연구 (7)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3)

불자-그리스도인?

‘불자-그리스도인’이란 역설적인 단어가 있다. 부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는 이중적 신앙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전혀 다른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전혀 다른 두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가 추구하는 선과 진리는 결국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그들에게 결코 생소한 이론이 아니다.

미국 유니언신학교에서 세계 종교와 문화를 가르치는 폴 니터(Paul Knitter) 교수는 2010년에 “나는 부처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과의 대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신학자이다. 2010년 말에 한국을 방문한 그는 2011년 1월에 조계종국제센터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독교만이 유일

한 참된 종교라는 확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확신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니터는 부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때를 것인지지를 알게 해준 인

물이라고 언급하였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화

니터에게 타 종교와의 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이라는 중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회에 주어 진 사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타 종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기독교의 유일성 또는 우월성을 앞세워 상대를 대항하고 이기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면, 상대와의 사귀이 가능한 서로의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니터에 의하면 이 시대의 신학은 기독교라는 단일종교가 아닌 다종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세상에는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동양의 무속종교 등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 중심의 전통적 사고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과거에 유일성을 ‘진리’로 주장하였던 시대를 벗어나, 다양한 시각들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포스트모던시대의 특성이 이런 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남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진리’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된 왜곡된 사실에 불과하다.

이 시대는 이런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하여 객관적인 진리를 습득할 수 있다는 확신에 입각하여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니터는 만일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자신들의 진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종교적 이웃의 위치에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배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칙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강자로 남게 된다.

만일 이런 국가간의 긴장관계가 계속된다면 이 세상을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종교는 이런 ‘경쟁’의 구도를 벗어나 ‘협력’의 원리를 수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록 기독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가 이런 막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세계의 종교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여 ‘협력정신’을 공유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지 못하였던 타 종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는 어느 정도의 영적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죄와 어둠에 속하여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종교에도 진리를 향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영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1962-1965년 사이에 모였던 바티칸2호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다. 그가 다니던 윈스터 대학의 스승인 칼라너는 이 모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로서, 가톨릭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러나 니터는 라너의 기본적인 종교다원주의적 노력에는 동의하였지만, 그의 ‘포괄주의’가 기독교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았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니터는 1985년에 존 히크(John Hick)의 종교다원주의 사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육신은 신화에 불과하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성이 없던 인간 신격화 하였다. 실상 그는 인간이었으나, 타인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그의 삶을 모범으로 삼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을 주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 종교에서 절대자로 추앙하는 바로 그 신이다.

2002년에 와서 니터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가 추구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실질적인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가 타 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가 방신학에 대한 태도를 느끼면서 종교가 지닌 실천적 사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되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타 종교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 그것은 세대에서 발견되는 사회의 부조리가 낳는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구원하는 중대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을 만나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총살하여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해방자 예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대화불가

니터가 소개하는 타종교와의 대화는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개인의 종교적 경험과 확신한 사실에 입각하여 대화한다.
 - 2)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한다.
 - 3) 얼마든지 타 종교의 ‘진리’로 인하여 자신의 견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 놓고 대화한다.
- 그러나 이런 식의 대화는 결코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타종교를 올바르게 대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던의 정신을 수용하여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13면으로 계속)

기독교 유일성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부정 기독교는 종교가 지닌 특성과 진리 혼동 모순 허용 안해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변이

니터의 신학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였다. 그가 타 종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 소재한 Divine Word 라는 가톨릭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다. 그가 수학적 학과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약간 소개된 지역에서 사역할 선교사를 전문으로 훈련하였다. 자연히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타 문화와 타 종교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의 구원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부터 신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니터는 기독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이 결코 완전한 진리의 체계는 아님을 강조하였다. 다른 종교도 진리를 소유하였다고 확신한 그는,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닌 진리를 드러내도록 중용하였다. 서로가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가 말하는 진리를 접하게 되면서 진정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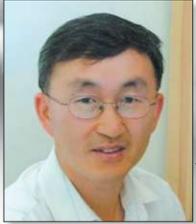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그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할 것이 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매일, 창평년)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228-9540,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02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21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5:30(월-토)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961-1004, Fax. (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신자들이 동역자를 기리고 있습니다.”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과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hurchmannam.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병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창평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loseas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만민)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창평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 www.arkmissionchurch.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창평년) 창, 장년영양예배: 오전 11:30 오후 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2:4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www.lapc.org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amsungchchurch.org Tel. (562)690-89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86-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병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토)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i153@yaho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운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엘비안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5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 오후 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일) Tel. (714)931-2029 / Fax. (714)937-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새벽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선양)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은혜성가: 오전 3:0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1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최병수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4부: 오후 1:30 영양예배: 오전 9:00, 10:30 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아침예배: 오전 6:3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58-2641,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330-4040(CH), Fax. (310)3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51.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8) : 수 천 개의 열쇠들

열쇠꾸러미는 참으로 거추장스럽다. 한 두 개도 아니고 거의 10개나 되는 열쇠꾸러미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전자 열쇠도 있다. 짐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열쇠, 차문을 여는 열쇠, 엔진을 시작하는 열쇠, 직장의 건물 열쇠도 있고 사무실 문 열쇠도 있다. 교회 열쇠도 있고 아내와 딸아이의 차 열쇠도 있다. 한 개의 열쇠로 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마자 집 문을 잠그고 자동차 문을 전자 열쇠로 열고 키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서 자동차 엔진을 시동걸고 직장으로 향한다.

식사를 하고 나면 체 한 시간이 안 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녹말 같은 고분자 탄수화물들이 포도당 같은 작은 당이리로 소화(분해)되어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나 뇌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간에서는 글라이코겐(Glycogen)이라는 포도당덩어리로, 지방조직에서는 지방으로 형태를 바꾸어 축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포도당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췌장(Pancreas)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과 함께 움직여 각 조직들을 흔들어 깨워 포도당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간, 근육, 지방 등 각 조직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반입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다시 저장 에너지 형태로 축적하게 된다.

인슐린이 조직의 세포 밖에서 소식을 전하면, 세포 안에서는 그 소식이 다시 세포의 구성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달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반입할 준비를 한다. 특별한 문(Glucose transporter)이 더 많이 설치되고, 반입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포 내의 기체들을 만들거나 준비하기 위한 작업 등이 진행된다.

이 작업에는 핵 속에서 필요한 DNA 정보를 읽어 오는 일, 이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생체기체들을 더 만드는 일, 생체 트럭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일 등 여러 작업들을 포함한다. 이런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한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스스로 통제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인슐린 신호가 세포 안에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인슐린 신호(Insulin signaling) 혹은 인슐린 신호전달(Insulin signal transducti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세포의 조직은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큰 회사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정보는 회계부서, 생산부서, 물류부서 등 필요한 곳에 전

데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맞을 때만 신호가 전달된다.

그런데 세포가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신호가 항상 전달될 것이다. 만약 인슐린이 없는데도 인슐린 신호가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다. 그러므로 세포는 평소에는 꼭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세포는 신호가 왔을 때만 엄청난 속도로 그 열쇠들을 복사하는데 그 열쇠들이 다음 단계로 신호를 넘기게 된다.

인슐린의 경우 인슐린 안테나 자체도 열쇠 복사기다. 이때 열쇠(Insulin receptor substrates)는 간단하게 만들어 지는데, 이미 자물쇠에 꼭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긴 열쇠에 간단한 화학분자(Phosphate)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되고 인슐린 신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에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열쇠들을 여러 번 만들기 때문에 각 단계를 넘어 갈수록 신호는 확대되어 급속하게 퍼져간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정확한 열쇠에 붙은 그 화학분자를 떨어뜨려서 인슐린 신호가 전달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생체신호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세포 속에는 인슐린 신호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호르몬들을 위한 신호체계가 있다. 전기 신호체계나 화학 신호체계들이, 마치 미국 전역에 전기 줄과 전화선 및 기타 무선 통신망들이 준비하게 깔려 있듯이,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들을 표시한 그림이 위의 그림이다. 자물쇠와 열쇠 혹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특수하게 신호들이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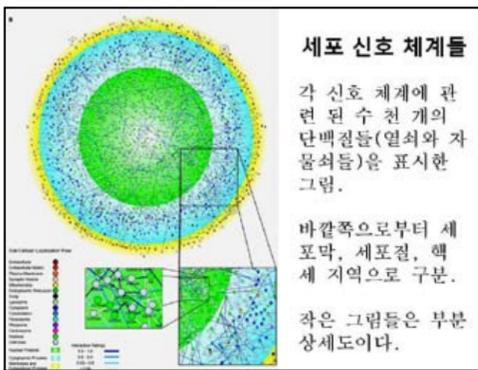
하고 정밀하게 전달된다. 만약 이 중에 몇 가지의 신호전달 체계가 무너진다면 세포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수천 개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를 가진 세포가 각각의 자물쇠와 열쇠를 어떻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까? 각각의 자물쇠와 열쇠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우연한 화학 반응을 통해 저절로 만들어지고 모아져서 신호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진화론적인 생각은 과학 법칙이나 경험들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메바 같은 간단한 세포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사람 세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자를 무시하는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심자기의 원수가 된다(빌3:19). 진화는 인류 출현 이전에 이미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이어지는 엄청난 죽음이 있었다고 말하므로 인류의 죄와 죽음이 상관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롬1:20). 과학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수많은 자물쇠와 열쇠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인슐린의 신호전달 체계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적이고 능력이 대단한 존재가 만든 것이다. 성경의 창조자를 믿으면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비로소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동물들 중에 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는 자연발생시스템 될 수 없어 지적 초능력자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과학적”



달된다. 원자재를 구입하고, 운반하고, 가공하거나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정보들이 전달되고, 다시 그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전달했다는 정보를 받으면 회계부서는 대금 청구서를 보내는 등 갖가지 정보들이 오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안테나(Insulin receptor)에 붙으면 이 신호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세포 내 필요한 모든 장소와 시간에 전달 되게 된다. 세포 안에는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기 때문에 신호들이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혹은 전기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된다. 세포의 신호전달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물쇠와 열쇠의 방법과 비슷한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청소년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부모의 말 한마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이제 돌보는 부모의 자리에서 동행하는 부모의 자리로 바뀌어 앉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함께 인정하고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 떠나는 동행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을 보셨나요? 위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래는 짐승의 모양을 한 목신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움을 간직한 채 묘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때때로 어린이 같다고 생각하고 보면 어른 같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아이가 되어 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들지요. 청소년 자신들도 모호한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골몰하면서 자신에 대한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을 향해 뛰어가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들은 부모를 수사관처럼 잘못을 깨내어 폭로하고 제대로 못하는 부모의 역할을 인정사정없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자녀와 화목한 시간을 갖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곡예단에서 줄타기를 지켜보듯 아슬아슬하고 합력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청소년 자녀들이 지나치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잠깐 속으로 절제를 외치세요. 화나지 말고 침착하게 말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네가 속상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엄마는 네가 화나지 말고 예의있는 모습으로 말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선택한 행동이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엄마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드는구나.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슬프다." 이때의 키워포인트 자녀와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우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과 느낌, 욕구를 비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방진 태도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때
잠깐 멈추세요! 쉽게 책망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마시고 큰 숨 한 번 내쉬고 부모의 마음을 다스린 후 그들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엄마를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내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구나. 이제는 네가 많이 컸으니 엄마가 네 도움을 받고 싶구나." "와!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넌 참 특별해. 아무튼 넌 큰 일을 해낼 거야." 청소년기 자녀는 자신의 열등감을 건방진 태도로 방어막을 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건방진 태도를 다스려주세요.

-청소년 자녀의 짜증과 무리력, 무관심 코드로 낙심 될 때
같이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존감 세우는 말들을 들려주세요. 세상을 향한 열등감과 두려움의 표현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법이지요. "노는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된단다." "너는 우리 짐 보물 1호인 것을 알고 있지?" "차근차근 해봐, 나는 잘 할 수 있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힘이 됩니다.

-청소년 자녀가 자주 분노를 폭발할 때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다만 잘못된 분노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폭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녀가 분노를 드러낼 때 부모가 예민해지면 안됩니다. 부모가 유머를 갖고 여유 있게 행동하면 자녀가 더 잘 감정을 다스리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규칙을 미리 의논하세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홍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찬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 앨 교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 1부예배(영): 오전 7:00 주일 2부예배(영): 오전 8:15 주일 3부예배(영):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형 헌팅 부: 오후 1:30 홍투부(영) 오전 10시(미시간 11시)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3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알칸사 레지스터 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찬예배: 오전 11:30 주일오찬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 (410)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EJAS.COM</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8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윤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요찬양: 저녁 8:00 www.jkc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문)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 Tel: (253)535-6207, 531-8424 www.hawlichurch.org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0288, Fax: (253)474-9515 www.hawl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문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하와이지역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i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292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1-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인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문)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847-5252, Fax: (808)8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SB48저지 선언문 · 대각성기도회 결의문 채택

미기총 주최 “북미주대각성기도회 확산컨퍼런스” 폐막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회장 송정명 목사) 주최 대각성기도회 확산 컨퍼런스가 지난 20일과 21일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심각한 영적 타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영적 회복과 기도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미주 지역에 있는 25개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및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본 컨퍼런스는 미주 한인들과 4,200여 한인교회가 무릎을 꿇고 통회의 기도를 드리기로 청교도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 북미의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래 개최됐다. 특히 “어바인 대각성 기도 대회”라고 명명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기총 산하에 “대각성 확산센터”를 두고 미기총의 각 지역 공동회장과 도시별 지역교회협의회 회장들과 연계해 대각성 기도의 불길을 확산하고자 결의했다.

미주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박용덕 목사(OC교회 회장)의 사회, 손인식 목사의 설교,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 및 취지 설명, 한기형 감독(미기총총경회장)의 축도로 개최예배를 드렸다.



미기총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좌측 네번째가 회장 송정명 목사)

이어 열린 1박2일의 일정은 ‘세계의 상황과 대각성 기도 운동의 필요’에 대해 민중기 목사(남부주교협회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배한수 목사(워싱턴교회)의 사회로 미국의 거목성이 상실되기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절감하고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참석자들의 통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SB48법안 저지를 위한 기도회와 미국은 물론 남, 북한과 세계를 위한 기도회가 김희수 목사(샌디에고교회)의 사회, 변재원 목사(샌프란시스코기독교교회), 이동진 목사(이스트베이교회), 한태국 목사(코네티컷교회) 등의 인도로 열렸다.

첫날 저녁 식사 후에는 북미주 각 도시별 대각성 불길점화에 대한 전략토론회가 이만수 목사(남부주교협회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둘째날 아침에는 이동학 목사(샌프란시스코교회)의 사회로 대각성 기도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한 후, 전만기 목사(디트로이트교회)의 사회로 대각성 기도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한 후, 전만기 목사(디트로이트교회)의 사회, 송정명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폐회예배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각 지역 영적지도자로 세워 주셨음을 확인

하며 앞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미주 각 지역에 대각성 기도운동을 확산시켜 오순절의 부흥을 되찾자고 결의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B48 법안의 저지를 위한 선언문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으로 채택됐으며, 대각성 기도회 확산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강주영 정승락 목사안수 제49회 KAPC남기주노회

강주영 전도사와 정승락 전도사의 목사안수예배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남기주노회(KAPC 노회장 김충한 목사) 제49회 노회장소인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에서 지난 20일 저녁 7시에 개최됐다.

서기 안병권 목사(가나교회)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목사안수예배는 서진복 목사(얼바인중앙교회)가 기도, 노회장 김충한 목사(넘치는교회)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눅19:28-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목사서약, 목사안수 및 악수례, 공포, 회원호명 등으로 이어졌으며 김한오 목사가 권면을, 권영국 목사(대흥장로교회)가 축사를 했다.

이날 목사안수예배는 이날 안수 받은 강주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기주장로협의회 주최 이웃을 돕기위한 사랑의 찬양제에서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연약한 자 돕는 것이 예수사랑 실천”

남기주장로협, 제5회 이웃돕기 사랑의 찬양제

남기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하기연 장로) 주최 제 5회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25일 오후 5시30분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찬양제에 앞서 드러진 1부 예배는 한철수 장로(남기주장로협 수석 부회장)의 사회, 하기연 장로 인사말, 손수용 장로 기도, 박신철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하기연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연약한 자를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본 찬양제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가 충만하기 바란다”며 찬양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신철 목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선물

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강권했다.

2부 찬양제는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운 목사)의 ‘원해, 주기도문’으로 막이 올랐으며 알렐루야상열즈 남성중창단, 미주복음방송 선교합창단,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재연 목사), 레위남성성가단, 글로리아한인합창단, 미주여성코랄, 남기주사랑의교회, 남기주장로성가단,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함께 찬양한 후 문병용 목사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KAPC남기주노회에서 강주영 정승락 전도사의 목사안수예배후 노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KLCA주최 제4회 다민족 조찬기도회에서 커뮤니티평화상을 받은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김태현 회장과 마이클존스 목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KCLA주최 제4회 다민족 조찬기도회

노숙자대모 글로리아김 선교사 커뮤니티평화상 받아

제4회 다민족 조찬기도회가 24일 오전 8시30분 Korean Latino Community Association(KLCA 회장 김태현) 주최로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커뮤니티 피스메이커 시상식이 열렸는데 25년간 주야로 쉬지 않고 홀리스들을 위해 헌신한 노숙자 사역의 대모인 글로리아김 선교사(시온복음교회 대표)와 마이클 가르시아 목사가 수상했다.

이날 기도회는 1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2부 커뮤니티 평화상 시상, 3부 라티노 유산의 달을 맞아 흑인 백인 아시안 라티노 목회자들이 모두 함께 라티노 문화 유산과 그들의 성취를 축복과 축하를 해주며, 화합과 용서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전달하여 다민족간 동질감 회복과 창조를 위한 순서로 진행됐다.

170여명의 다민족 종교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기도회는 마이클 존스 목사의 인사말, 헬렌 윌리엄스 목사(아주사피사대학 교학장)가 기도, Ephraim Sayud 목사가 찬양을, 빌리엄 전도사(시온복음교회 대표)와 마이클 가르시아 목사가 설교를 했다. 또한 어메리칸크리스천프렌즈 찬양대가 특송으로 ‘Amazing Grace’를 불러 이날 기도회를 더욱 빛냈다.

이날 기도회는 Son Nguyen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비전, 이규섭 목사 뉴욕운영위원 위촉

월드비전 코리아테스크가 퀸즈한인교회 담임 이규섭 목사를 뉴욕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3일 월드비전 코리아테스

크 뉴욕위원회 운영위원장 방지각 목사, 동부지부장 심장우 장로, 동부지부 김윤정 디렉터는 퀸즈한인교회를 방문, 이규섭 목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규섭 목사는 운영위원 위촉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월드비전 사역에 동참해온 것 처럼 앞으로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방지각 목사는 이번 이규섭 목사의 새 뉴욕운영위원 위촉으로 앞으로 더 크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월드비전 코리아테스크는 10여년 전 뉴욕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기사제공: 월드비전뉴욕운영위)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 단원으로 LA를 찾은 가수 박효신(좌)과 영화배우 이준기

6.25전쟁 UN참전국 순회연주회

대한민국국군교향악단, 수준 높은 연주 보여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단장 황우현, 상임지휘 배중훈)의 6.25전쟁 UN참전국 순회연주회가 23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총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6.25한국전쟁과 다이내믹 글로브 한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됐으며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묵념, 그리고 본 교향악단이 E.Elgar의 ‘Pomp and Circumstance Military March No.1 ‘Land of Hope & Glory’, 하이든의 ‘Trumpet Concerto(3rd Mvt.)’, R. Smith의 ‘인전’ 등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박고은 양의 트럼펫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씨와의 협연은 이날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날 사회는 국군연예사병

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맡았으며 인기가수 박효신과 팝페라 가수 박완이 ‘You raise me up’을 듀엣으로 불렀다. 박효신 씨는 앵콜곡으로 ‘My Way’를 열창해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이준기와 박효신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팬들이 교회를 찾아와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이들을 보기위해 교회를 찾은 청소년 팬들이 대기실임구에 몰려들어 마치 방송국이나 콘서트장을 연상케 했다.

국군교향악단은 오션사이드에 있는 팰턴 캠프의 사우스메사홀, UCLA 로이스홀, 한인축제장소인 서울국제공원, 샌디에고의 미드웨이 에어크레프트 커리어 등에서 순회 연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KAPC남기주노회에서 강주영 정승락 전도사의 목사안수예배후 노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13회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주님, 큰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제13회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2011년도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5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300여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영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86년에 창단한 기독교여성합창단이 어느덧 창단 25주년을 맞이했다. 4반세기 동안 기독교여성합창단으로 명실상부한 연주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밤 이 찬양을 통해 ‘주님, 큰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수 목사(울림평장로교회)의 개회 기도도 시작한 공연 첫 스테이지에서는 ‘할렐루야 기뻐해’, ‘호흡이 있는 자여’, ‘매일 주만 섬기리’를 불렀으며, 두 번째는 가곡순서로 ‘두 개의 작은 별’, ‘에델바이스’, ‘사랑은 아름다워’의 다수 곡을 불렀다.

청중들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어서 찬조출연 자로는 이명규 교수가 등단 ‘신아리랑’과 오페라 Le Nozze di Figaro를 불렀다. 이어서 소노로스 남성중창단이 ‘죄지 않은 우리 구주’, ‘너는 내 아들이라’ 외 다수 곡을 불렀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장기기증 서명운동이 LA한인축제장소인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필수기증서명운동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LA한인축제기간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필수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을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을 펼쳤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LA지역본부 책임자인 김대호 장로는 “이번에 펼치는 운동은 캘리

포니아 주정부 단체인 Donate Life California와 협력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가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단지 썩어질 육신을 땅에 묻는 것보다는 필수기증을 통한 장기기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축제기간 부스를 설치하고 기증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사진은 왼쪽부터 김윤정 디렉터, 방지각 목사, 이규섭 목사, 심장우 장로.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성경개혁운동본부

<월간> 미주크리스천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ly@yahoo.com

24시간 영영

뉴욕곰탕 스텝가게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련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목회자의 성윤리' 세미나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가 오는 7일(금) 오전 10시30분 '목회자의 성윤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송홍용 목사이며 장소는 뉴욕비전교회(담임 김연규 목사)
▲문의: (718)637-1470 총무 허준준 목사

작은교회 돕기 찬양집회

아넬넷(대표 이종철)과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공동으로 '작은교회 돕기 찬양 회복을 위한 집회'를 시작한다. 찬양을 원하는 교회 또는 단체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특별한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등을 요청하면 된다. 유태웅 목사는 기독교문화선교 라이프라인미션 대표로 한국과 미국에서 25년간 기독교문화선교자로 활동했으며 예배 컨설팅 및 예배사역자로 5백여 찬양집회를 인도했다. 미주기독교문화사역 CONgally(콘스트랙터리)을 하고 있으며, YP3형제 찬양사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usallm2020@gmail.com, 팩스 718-428-4671.
▲문의: (718)353-4553

퀸즈 YWCA시니어 운동회

제 13회 퀸즈 YWCA시니어 운동회(Senior Mini Olympics)가 10월 7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플러스 키스나 공원에서 열린다. 무료티켓은 퀸즈 YWCA에서 9월 19일부터 배부하며 선착순 450명에 한한다. 이 운동회는 한인 노인들의 건전한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며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년층에 필요한 건강정보와 정부지원 서비스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게임 및 공연 등이 있다. 점심 제공.
▲문의: (718)353-4553

부목사 및 전도사 청빙

뉴욕베이사이드 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부목사 및 전도사를 청빙한다. 교회행정 및 청년대학부(한어권) 풀타임 담당목사로 장로교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교회행정과 청년사역 경험자. 중국 등 학생부를 위한 풀타임/파트타임 전도사로 장로교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이력서(학력 포함), 신앙고백서 한부(목회비전 포함)을 이메일 David2lord@hotmail.com 로 보내야 한다. 접수마감은 10월 31일까지.
▲문의: (718)229-0858



퀸즈장로교회 2011가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2011가을 선교바자회가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밤 9시까지 열렸다. 매년 불가사로 개최되는 선교바자회는 퀸즈장로교회의 선교기금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이번 바자회로 총 8만9천 달러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로써 지난 봄 바자와 함께 2011년 바자회로 총 15만6천 달러의 선교기금을 마련한 셈이 됐다.



뉴욕효신장로교회 교육문화관 준공감사 및 임직예배에 임직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다.

뉴욕교협회장 후보 2명 재등록

23일 노기송 양승호 목사 각각 기자회견

부회장 이종명 목사의 회장후보 탈락에 이어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의 회장 후보 재등록이 지난 23일 오후 5시 마감됐다. 이날 노기송 목사(뉴욕예루살렘교회 담임)와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가 임후보했다.

두 후보 모두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오전 11시30분에는 양승호 목사가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오후 4시에는 노기송 목사가 교협사무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소견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뉴욕교협 화합과 명예회복, 청소년 지원 등을 출마소견으로 내놓았다.

한편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10월 24일(월)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양승호 목사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자리한 양승호 목사는 "2002년부터 실행위원으로 임명 받았으나 중심에서 섬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행사 장소제공, 접대 등 협력요청은 최대한 감당했다. 이종명 목사 후보탈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지만 교협을 위해서 변방이 아닌 중심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한다"며, "만약 회장으로 교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37년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온 뉴욕



노기송 목사



양승호 목사

교협이 성숙한 모습으로 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공약서를 배부했다.

공약서는 △첫째, 소통이 잘되는 화합과 연합의 교협(회원교회, 경건회, 각 교단장, 지역대표, 한인회, 언론) △교협의 부정적 이미지, 실추된 명예회복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사역자 양성 등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교협 △회원교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회자들을 도우며 목사회나 선교기관들과 연계해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동석한 송우성 장로회장은 양 담임목사에 대해 "위아래를 잘 어우르는 화합형으로 포용력이 있다"며 "교협회장이 되신다면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호 목사(1961년생)는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12년째 시무 중.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부총회장

노기송 목사

한편 노기송 목사는 "갑자기 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됐다. 교계에 덕망

효신아카데미·선교신학원 사용

뉴욕효신장로교회 교육문화관 준공감사 및 임직예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지난 25일 교육문화관 준공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로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16:1-13)는 제목의 말씀에서 "주님 앞에 코람테오의 신앙이 있을 때 다윗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임직자들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중관 건축위원장의 교육문화관 준공 경과보고에 이어 홍중관 장로와 심재영 집사, 이규면 설계사, 황혁근 연합토목건설 대표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 방연성 방용일 엄수훈 이근정 이용석 이원기 △선교장로: 문태호 △안수집사: 박삼양 함정권 등이 임직했다.

이날 강현석 장로(KCTV이사)와 로리 래크만 플러스 지역구원의원이 축사했으며 이용호 목사(뉴저지평안장로교회 담임)가 권면했다. 이원기 장로의 답사에 이어 문석호 목사가 임직패를 전달하고 예물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문화관은 2010년 3월 17일 첫 삽을 뜬 후 지난 8월 완공하고 9월 허가를 받아 이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교육문화관은 2층과 지하에 교육문화시설이 있고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교육문화 장소로 사용된다.

동 교회는 이 건물에서 효신아카데미를 통해 방과후학교와 토요일 국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 2년 과정의 선교신학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있는 한 분이 나오시기를 종용했거나 적극 고사하십시오 본인이 나오게 됐다"며 후보 소견을 발표했다.

노 목사는 △뉴욕교협 화합: 예수그리스도의 심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똘똘 △뉴욕교협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37년간 잘 해온 뉴욕교협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며 인본주의, 화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그리스도 구원관을 지향한다. 현 회장과 부회장의 명예도 회복돼야 한다. △2세를 위한 청소년 사역의 활성화: 뉴욕교협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작고 힘든 교회 살리기 운동: 뉴욕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다.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힘있게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노 목사는 성경구절(엡4:2,3)을 낭독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장점과 교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목사는 "섬김의 자세"를 장점으로 말하고 "섬김과 정직"을 지도자의 자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회장후보로 나서며 공정성을 위해 현 교협감사직을 사임하고 아넬넷 편집위원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노기송 목사(1953년생)는 1994년 미남침례회 목사안수를 받고 뉴욕예루살렘교회 개척. 세계성령화운동뉴욕본부 사무총장. 국제장애인선교회 회장, 한국로템의집짓기 미주후원회장. (유원정 기자)



뉴욕 뉴저지 지역 GKYM 미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에 앞서 서명하고 있다.

선교는 한마음으로... 연합 강조

GKYM 뉴욕 뉴저지 지역 컨퍼런스 개최

2011년 세계한인청년선교축제(GKYM, 대회장 김혜택 목사)를 앞두고 지난 25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Jonathan Bonk 목사를 강사로 열린 이번 집회는 '미니 GKYM'라고 불리며 본 선교축제 홍보 차원에서 '미리 가본 대회' 성격으로 열렸다.

컨퍼런스는 2009년 선교축제를 통해 선교에 헌신한 남녀청년들의 간증이 발표됐으며, 대회장 김혜택 목사의 감사 소개가 있었다. 김혜택 목사는 "선교는 한마음으로 가야하며 모든 기독교 역사는 작은 것들이 합해 불이 타올랐다"며 연합을 강조하고 GKYM이 세계 선교운동임을 설명했다. 이어 선교전문가 조나단 봉크(Jonathan Bonk) 목사의 선교강의로 이어졌다.

청년들의 선교동원이 목표인 이 대회는 올해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욕 엡스테이트에 있는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GKYM 2011은 2009년 대회에 비해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적인 안목을 넓히고 그 정체성으로 선교사 헌신을 강화한다. 감사진도 목회자, 문화사역

자, 평신도, 선교사 4개 부문에서 초청되며 주 강사로 로렌 커닝햄(CCC 총재), 존 비버레(순종, '관계' 저자), 밥 크레슨(위클리프), 이희돈 장로(WTC 부총재), 찬양은 스타필드, 소향, 선예 등이 초청된다. 이외에도 유명 강사들을 섭외 중에 있다.

동 대회는 18세 이상 청년과 대학생이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선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와 선택강좌, 선교체험 현장과 선교사 간증, 성경강해, 소그룹 모임, 저녁집회와 새벽기도회, 아침예배와 찬양, 선교단체 전시와 상담, 미전도 종족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일류호텔에서 좋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등록비는 1차 10월 15일 마감 150달러, 2차 11월 15일 200달러, 3차 12월 15일 250달러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열리는 미니 대회는 10월 8일(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번 더 있게 되며 한어권 후원 갈라 디너쇼가 11월 6일(주) 오후 6시 플러스 대동연회장, 영어권은 12월 3일(토)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551)486-0100로 하거나 웹사이트 gkymfest.org를 방문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유료 광고 안내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 리스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SB48반대청원 한마음으로 서명운동

남가주교협, LA 한인축제 장소에 부스 설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는 SB48반대 청원 서명운동을 LA한인축제기간인 22일부터 25일까지 축제장소인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쳤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협부회장인 박성규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중인 주님세운교회 후원을 열렸는데 기독교인은 물론 안식교 교인들과 외국인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다.

이날 동참한 사람들은 SB48로 인해 닥치게 될 미국의 윤리적 타락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님세운교회 이경복 집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성애교육법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은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개인 성향에 대해 알기할 수 없는 것이지 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교과서에까지 미화시키며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반대서명



SB48반대청원 서명운동이 LA지역에서는 LA한인축제 장소인 서울국제공원과 OC지역에서는 플러튼한남체인(우측하단)에서 열리고 있다

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팔로스버디스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다니엘베 목사는 “동성애교육법은 신앙적으로 볼 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후대들에게 동성간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결국 이 나라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

인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만히



사이러스 사역원 주최 자녀은사찾기 세미나가 APU에서 열리고 있다

“하나님 주신 은사에 맞게 교육하라”

사이러스 사역원 주최 자녀은사세미나 성황

사이러스 사역원(대표 배현경 전도사)은 Katie Fortune(Aglow 설립자)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자녀 은사 세미나를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아주사피 시피대학교 LA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아이의 은사에 따라 어떤 정체성과 관계성으로 진로와 직업으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4번의 세션강의를 통해 다뤘으며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배현경 전도사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 저절로 되는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품과 특성을 알아야 잘 자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전도사는 “물을 많이 줘야 하는 꽃이 있는 반면 적게 줘야 하는 꽃이 있듯 아이들 역시 부드럽게 교육을 해야 하는 아이,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아이가 있다. 또한 아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을 케티 포춘 선생을 통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 ‘Su Don Espiritual’, ‘Discover Your God-Given Gifts’, ‘Discover Your God-Given Gifts’ 등을 저술했으며 Aglow 설립자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토렌스 미주서부장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에서 열리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물댄동산 장애인선교회 찬양과 간증의 밤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축복된 만남’

물댄동산 장애인선교회 찬양과 간증의 밤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대표 최영희 전도사)가 주최하는 찬양과 간증의 밤 행사가 ‘나는 행복한 사람, 축



사이프레스삼성장로교회 창립예배에서 차권희 담임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사이프레스삼성장로교회 설립예배 “지역사회 섬기며 세계 선교 감당할 것”

사이프레스삼성장로교회(담임 차권희 목사) 설립예배가 25일 오후 3시 은해가운데 진행됐다. 차권희 목사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김영신 장로 기도, 신원규 목사(라하브라삼성교회 담임) 설교, 지용덕 목사(양곡교회 담임) 축사, 봉헌, 박준석 목사(명광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신원규 목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마16:13-19)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차권희 목사는 “사도행전의 하나

있을 수 없어서 이일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SB48반대청원운동에는 학생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웨스트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김하나 양(12학년)은 “교과서는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는 합법적인 책이다. 교과서를 통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동성애를 좋은 것이라 배우는 것은 결국 인간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법안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는 소식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옐렌지카운티 지역에서는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플러튼 한남체인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초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교수를 초빙한다. 초빙분야는 신약신학, 실천신학(설교학 전공),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선교영역학이며 분야별 각 1명씩 초빙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자격사유가 없는 영여강사가 가능한 자이다. 접수는 10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및 방문 접수이다.

▲문의: 82-31-770-7723

한국콘티넨탈싱어즈 미주찬양집회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한국콘티넨탈싱어즈의 2011년도 미주 찬양집회 “In the Shadow of Thy Wing(주의 날개 아래)” 첫 번째 공연을 10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에 개최한다.

▲ 문의: (650)210-0000

미션해바라기 콘서트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미션해바라기콘서트’를 10월 7일(금)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다.

▲문의: (213)393-9559 최재준 전도사

닉부이치치 초청 전도 집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닉부이치치 전도집회를 ‘절망을 넘어 희망의 소리’라는 주제로 10월 2일(주) 11시 30분 개최한다.

▲문의: (714)521-0991



조이스티교회 창립예배에서 강신승 담임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기쁨이 넘치는 제자공동체’ 꿈꾼다 조이스티교회 설립예배, 28-30일 부흥성회 개최

에나하임 지역에 소재한 조이스티교회(담임 강신승 목사 2201 E.Winton Rd, Unit H, Anaheim, CA)가 25일 설립예배를 드렸다. 담임 강신승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이스티교회를 세우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청년들을 위해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 받고자 기도하면서 세우게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지난 3월 ‘기쁨이 넘치는 제자공동체’를 꿈꾸며 7명의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조이스티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설립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강신승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 담임)기도, 김일권 목사(다이나몬다감사한인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지용웅 목사(수정한인교회 담임) 권민 박상훈 목사(빅토벨리감사한인교회 담임), 곽동호 목사(미추고신서부교회 회록서기)의 축사가 있었으며 축하 영상을 관람하기도 했다.

본 교회는 설립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창호 목사를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 전화는 (714)873-6025.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일 예배(주 찬양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교단 총회 결산

23일 한국기독교총회(기총)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폐막되면서 주요 교단 가을 총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평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한...

아니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다 같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기독교 내부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갱신으로 빛과 소금이 되자' 결의 잇따라

보수교단의 여성목사안수 통과, 통합논의, 한기총 탈퇴문제 직접 거론

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정근두(울산교회) 예장 고신 총회장도 "신한 삶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교회 현장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탈퇴 건을 교단 총회가 정면으로 다룬 것은 이런 위기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첫 장애인 총회장(배재인 목사, 대전 서어나교회)을 배출한 총회장은 돌 무렵부터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약...

돌러싼 논란을 극적으로 봉합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교회 밖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마당에 여성 목사 안수 이슈는 계속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단 간 통합 논의가 구체화 된 것도 진일보된 변화였다. 예장 고신과 합신은 각각 합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했다.

"미션스쿨 억압, 초중고생에 동성애 조장" 기독교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강행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의 몇몇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사학 등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찬성한 정당, 후보 등에 대해 낙선 및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발의안은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의식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조항"이라며 "결국 이 조항은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데 과연 옳은 일인가. 인터넷 TV 등을 보고 음란행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성의식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나 학생이 선택권을 갖지 않는 이상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학생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회회는 논평을 내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권보장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종교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을 어떤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탄압이며 종교교육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염려된다"고 밝혔다.

국민화합연구소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를 발족하고 조례 상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상정 기준인 서울시 유권자의 1%, 8만2000명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서명을 받자 대한불교청년회와 민주노총,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시의회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에는 각각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 제18조, 제19조다.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교육청안 제18조는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 시,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열거

각 교단 총회를 통해 본 2012년 중점 정책 · 사업

내년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대형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폐막된 각 교단 총회의 보고서에는 교단마다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눈에 띈다.

○...예장 합동 총회는 교단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00주년 기념행사, 총회 신학정책서 포럼, 백서 및 100년사 증보판 발행, 세계개혁교회대회 등을 개최한다.

○...예장 통합은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12년 대형 행사 대신 노회와 지역 교회 중심의 기념 행사를 치른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빌려 대형 집회를 열면 예산 낭비와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박위근 총회장의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

○...예장 대신은 교회의 신앙과 야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다. 현재 진행 중인 '1만 교회, 500만 성도운동'에 '3만명 기도자 운동'을 추가한다.

"MBC PD수첩 고발사태 깊은 유감 29명 철저조사 대치"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결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25일 당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특별위에서는 고발자 29명과 고발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확인 조사

Table with 3 columns: 교단, 주요 정책 및 사업, 비고(사업 일정). Rows include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총, 예장 고신, 예장 대신, 예장 합신, 예장 백석, 기총.

생활의 순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서 한기총 탈퇴 여부를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장로교 창립 100주년 잔치 "내실있게" 은퇴 목회자 복지·유가족 돕기에 주력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장 대신은 교회의 신앙과 야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다. 현재 진행 중인 '1만 교회, 500만 성도운동'에 '3만명 기도자 운동'을 추가한다.

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상 회복을 위한 10가지 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허물 메고 봉사에 올인" 한기총 임시총회, 70개 교단·단체 187명 총대 참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모든 허물 메고 봉사에 올인" 한기총 임시총회, 70개 교단·단체 187명 총대 참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까지는 차분히 진행됐다. 그러나 임원 인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교단 교단장들이 임원 구성에서 누락되자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4개월 남짓 남은 임기에서 이단 문제를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차기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임원 인준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고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가입 교단·단체 재인준도 임원회를 거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교회 측은 "이영훈 목사와 당회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고발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떤 경우이든 교회에 피해를 입히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 일에 매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속히 모든 일을 매듭짓고 교회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365Revival.com advertisement featuring CD/DVD duplicators and media supplies. Includes text: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중소교회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십시오',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십시오',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십시오'.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강의 중이며 선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기가 매일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학교 기숙사의 지붕은 마치 수십 개의 드럼을 동시에 두드리는 듯 정신없이 소란합니다. 더위와 습기의 어우러짐과 때때로 물과 전기가 소식 없이 중단되는 이곳의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리 받아놓은 물이 있어 머리를 행글 수 있네요. 호텔을 원하였는데 그냥 학교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90%가 불교이며 정령을 섬기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신학생들, 그



들의 맑은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섬리를 읽어갑니다. 전역 장학생인 40여명이 말씀 배우는데 진지하여 그들의 열정에 동참합니다. 3년 전 앞자리에서 열심히 즐기던 여학생 '에스더'는 이제 의젓한 리더가 되어 저를 많이 기쁘게 합니다. 그 애는 정말 희미함이 없어 보였지요. 교육의 힘을 봅니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네요. 얼굴이 생소한 수줍어하는 '속찌야'와 '피싸이' 학생은 처음이냐는 제 질문에 아니 작년에도 만났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저와 서로 대화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이 보석같이 영동합니다. 교육은 참으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학생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공단의 한 구석 길거리에서 넓은 비닐을 깔고 아이들을 모아 율동과 찬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학생들의 마을교회 곳곳을 방문합니다.

허름한 집의 더 허름한 창고를 빌려 알파벳과 노래, 율동,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이곳은 열 마리의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곳곳의 물웅덩이에 새끼오리들은 어미 따라 때로 몰려다닙니다. 잘생긴 장닭이 호화롭게 옷 입고 오리들과 작은 개들 사이에 모이 먹느라 한창입니다. 갖가지 가축들이 흥미로 뛰노니 주인이 모이를 저 가까운 곳마다 뿌리어 주네요. 주위의 집들은 마치 황토 물위에 떠 있는 듯 하지요. 옛그제 씨엔업의 양코르에서는 집중호우로 200여명의 관광객이 고립되어 헬리콥터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쓰레기들이 동동 떠다니는 도로를 걸어가며 비와 친숙해 갑니다. 지역이 낮고 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이곳은 보이는 길보

다 물 웅덩이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인지 옆의 수렁인지 보이지 않은 그곳을 잘도 알아서 가는 학생에게 물으니 길옆의 풀들을 보고 가능하여 안다고 합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듯 합니다. 인도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저녁에는 모기까지 좀 친하자고 달려들어 자주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 하지도. 발등과 다리의 붉은 반점들은 모기들의 깊은 입맛춤 자국들입니다. 단기 선교 팀이 오는 이번 주에는 더 깊은 오지로 들어 갑니다. 강권하십시오. 샬롬. 9월 24일 프놈펜 가까운 곳에서 오금옥 드립니다.



노승룡 장로, 남기주목사회에 에어콘 20대 기증 선교지역과 어려운 교회에 전달토록

남기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27일 벌본1가에 소재한 ENEX에서 에어콘 기증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노승룡 장로(풍성한교회 시무)가 피종진 목사초청 한인선교대회를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고 오지의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 돕기 일환으로 에어콘을 설치하지 못한 곳에 20대를 기증하게 된 것. 각 2천 달러를 호가하는 이 에어컨들은 정중한 목사가 선교하는 멕시코 티화나 선교지에 5대 기증을 비롯해 남기주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됐다. 노승룡 장로는 "하나님께서 세계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저는 조그만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라며 "어려운 선교사와 목회자를 돕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남기주목사회 제공)

선교지 편지

제가 아직 파송단체로부터 사역비 후원을 받지 못하기에 생활비에서 사역비를 감당해야 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에 저들이 제 눈을 불라치면 살짝 눈을 돌려대므로 저의 부담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희망도 없고 살려는 의욕도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이 황무지를 낙원으로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버리는 것조차도 다 돈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4월과 5월에 한국에 다녀와서 부터는 바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밀렸던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 중복되어 그 일을 하다 보니 쉴 틈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갑자기 집으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림빠 마을 가기 전에 있는 라부안 학교와 림빠 마을 다음의 로옥마을의 학교는 이미 학생들과 선생님을 집으로 모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새희망 학교는 소식을 좀 늦게 들었고, 오전 10시 30분에 수업하다 말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라부안 고등학교의 여선생 한명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부안 고등학교는 수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귀한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이들을 서서치 않고 잡아갈 것이라 경고로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군인과 경찰들은 뭐하길래, 시민들이 불만에 떨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한 나라가 못쳐서 잘 살려고 해도 힘든 이 시대에 종교가 갈리고 무슬림들이 활기는 치는 가운데 학생들의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전에는 시내의 사립학교 부자집 아이들이 주로 납치의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빈부를 가리지 않고 납치를 해 갑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눈과 몸 안의 장기를 빼내어 가져가고 시체는 산비탈에 버리고 그냥 가버리곤 합니다. 악이 극치에 달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잠보양가 지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한지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과격 단체로부터 경고도 받아 봤고, 납치의 위험도 있었지만 늘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악랄하고 잔인한 것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의 영혼들을 선교하기 위해 무슬림 지역을 늘 지나다닐 때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의 서남단 잠보양가 지역에서 오정운 선교사 드림.

필리핀

잘 지내시죠. 이곳 필리핀도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가끔 목도리를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한껏 벗을 부리고 외출하는 여인들을 봅니다. 이곳의 서리는 차 앞 유리에 맺힌 이슬이 대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주 이슬도 뚝아 내려야 합니다. 지난여름은 저도 매우 바빴습니다. 많은 한국 선교팀들의 방문으로 인해 이곳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돈도없는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 12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내야하는데 그것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습니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 형제가 조금씩 도와주어서 산답니다. 그 형제는 얼마나 버느냐했더니 그들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벌이는 아니랍니다. 겨우 한달에 6,7천 페소(한화 210,000원)중에서 준다하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은 1페소를 달라고고 엄마들은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

기도제목 ▲돈도 지역: 1)새 집에 들어올 임주자 선정이 잘되도록 2)가게에 들어와 장사할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발렌수엘라: 1)AMTS 훈련생들이 훈련을 잘 받고 선교사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2)교수진들과 담당자들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 ▲케시오 지역:1)피딩과 어머니 미팅을 통해 교회설립의 기반이 잘 구축되도록 2)어머니모임 때 쌀을 후원할 후원자가 생겨나도록 월 2회 5,000P(150,000원) 3)매주 성경암송을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숙이 이뤄지기를 4)9월31일에 있을 스텝 및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해서 5)10월 셋째 주에 계획하고 있는 부흥회와 영화상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물질의 후원자들이 생겨나도록... 주영광 선교사

7면에서 계속) 비록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나 객관성을 상실한 진리를 들고 대화에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결코 신학적인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지닌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신의 진리에 대한 고집을 포기하고, 타 종교

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대 교회가 전수받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지닌 특성과 진리를 혼동하는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의 대화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복음 선포를 통한 타 종교인 선교와 전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문화방송 나눔의 행복팀에서는 저희의 사역을 3부작으로 만들어 방송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제 아내 박영란의 인터뷰 모습이 멋지게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동명에게 있는 조이플 리빙스톤 처처에 있는 Asia Mission Training School에서는 아시아지역으로 파송할 선교사들을 위해 12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아이 5명을 데리고 사는 23살 아줌마는 쌀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미팅을 할 때는 쌀이라도 줘야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머니 모임에는 60-70명이 모이니 1kg씩만 준다 해도 60-70kg드는데 여기서 1kg에 28-30p짜리로 준다면 한 번에 60,000원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곳이니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니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지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바랍니다.

저희가 오픈한 산타마리아 케시오 지역에서는 매주 피딩과 어머니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세우려면 어머니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기에 함께 교육합니다. 이곳은 40년 만에 찾아온 태풍 온도이기 때문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위해 만든 집단이 주춧돌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집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월 200p를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m Wray. Includes details about phone rental services and prices.

생명 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Includes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Includes details about flower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Includes university logo and website.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form processing.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Includes details about wedd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Includes a form for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UN상정 팔레스타인 독립안 분석과 이에 따른 선교적 관점(상)

강태운목사 (베들레헴 선교사)

20세기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신생국가 건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생국가의 탄생에 경이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고, 일부 기독교계는 이를 다른 세기의 현상으로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경의 예언과 연관시켜 보고 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대의 표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과 연관시켜 해석을 하면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중동과 이 지역의 역학 구도를 새롭게 만들었고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창출하면서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곳에 불씨를 당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21세기 또 새로운 역사가 시

독고 성지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국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지역으로 하기로 하는 유엔총회결의안 181조인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 65만과 아랍인 130만 명이 살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65%가 아랍인이고, 이들이 당시 영토의 93%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약

을 가졌고 결국은 20세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개인적으로 키부츠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건국의 개척자들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손바닥의 굳은살들은 그들의 초창기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케 하였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현

현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우파정부와의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 문제를 유엔으로 옮겨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작년 말부터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팔레스타인 측에 우호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필코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팔레스타인 측을 압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금수조치, 징수한 관세에 대한 송금거부, 서안지구 정착촌의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 등으로 유엔총회에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하게 삼엄이사국에서 거부권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실



팔레스타인지역분쟁 UN해결안으로 1947년 이스라엘 독립 1988년 독립 선포한 팔레스타인 올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

작되려고 한다. 이는 다른 아랍인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63년 만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탄생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6차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투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는데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영토의 문제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유엔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이 결정에 팔레스타인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 이후 이곳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미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혁명적인 사건들과 함께 선교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947년 유엔의 결정과 당시 상황

1947년 11월 29일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 국가와 아랍(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세우는 분할안을 채택한다. 기

33%, 유엔의 분할안은 유대인들에게 56.47% 아랍국가에는 42.88%, 예루살렘 국제 지구는 0.65%의 땅을 할당하여 분할안을 통과시켰다. 객관적으로 불평등한 결의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명분을,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빼앗기는 역사의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 분할안에 대해 유대인들은 환영을 아랍인들은 반대하여, 결국은 1948년 이스라엘은 준비했던 대로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독립을 선언하였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신생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오히려 유엔이 정한 영토에 비해 이스라엘이 땅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후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아닌 최근의 오슬로(1993년)협정을 통해 자치정부를 세우 오늘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때 19세기부터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정착촌을 세우며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비한 상태에서, 유엔총회의 결정은 날개를 단 것이었고, 오랜 동안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

을 바로 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현명한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역사가 이 땅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알고 있다.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 땅을 확장하려는 유대인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터전에서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 팔레스타인들 간의 끊임없는 대결 구도는 두 민족의 문제를 넘어 중동 전 지역의 문제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어느 한 쪽의 주장을 가지고는 이곳의 문제를 풀기에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팔레스타인 독립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팔레스타인은 이미 1988년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졌을 뿐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94년 자치정부가 들어서 후 끊임없이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독립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제 미국 선거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팔레스타인 측은 독립안을 총회에 상정을 해서 전체 회원국들의 의사를 물으려는 전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전체 192개국의 2/3인 128개국 찬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5개국 삼엄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면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도 정식적인 회원이 될 수 없지만 총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 '투표권 없는 단속 옵서버'에서 독립국 지위는 아니어도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이 되어 유엔의 여러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과의 문제에서 국제형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엄청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평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독립에 손을 들어줄 기세이다.

(다음호에 계속)

뉴욕장로성가단 선교여행 보고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이 지난 9월 18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 블랙마운틴(노스캐롤라이나)을 방문했다. 다음은 단장 손성대 장로의 선교여행기.[편집자]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9월 19일은 Mountain Ridge Wellness center 양로원과 Black Mountain Presbyterian Church에서 찬양, 9월 20일은 Brooks Howell Home 양로원, Asheville Health care Center 양로원, Asheville(The Cove)에 있는 빌리그래함센터 채플에서 찬양하고 바로 빌리그래함센터 채플기도실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미국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것과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뉴욕장로성가단이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장로성가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가는 곳마다 장로성가단의 합창과 솔로, 중창, 필그림 선교무용단의 선교무용과 장구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하여 목이 매여 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저희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들과 함께 감격하며 울었다.

또한 Black Mountain Presbyterian Church에서 Hyde Linton 선교사님에게 3200달러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Hyde Linton 선교사님



단원배가 운동"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같은 날 Reynolds Lodge 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은혜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저녁식사 후 선교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감사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9월 21일은 Smokey Mountain으로 이동, 비가오고 안개가 끼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은 1948년 전남순천 결핵요양원을 세우신 Linton 선교사님의 4대 손이시다. Hyde Linton 선교사님에 북한에 결핵 퇴치와 우물파주기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Christian Friends of Korea 대표 이시며 북한에서 사역을 위해 지난 21일 출발하셨다.

특별히 빌리그래함센터 채플에서 찬양하고 바로 빌리그래함센터 채플 기도실에서 41명 전원이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눈물바다가 되었다. 참으로 보람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선교여행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미디어, 목회와 신학, 성경/전승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니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언급위면, 드레스,정장양복

미중동부 기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플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업계 최초 GDMK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관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품이 자유로운 배워(360도 회전) 손잡이(11방향 1톤중) 상당한 유용하다 - 성교사 사비보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7)



현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의 개발과 훈련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세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천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과, 참된 크리스천리더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고취시키고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단계 중에서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1단계(소명훈련)와 2단계(신앙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내면화)에 이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삶, 그들의 역사, 이에 대한 정치 경제적, 사회적 논의들, 인종 차별과 같은 관련 사회적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는 시간이 소그룹 교육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허락하신 "해석학적 특권"(직접적인 삶의 경험이 주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전체 과정 중에서 교육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 스스로 이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녀야 할 뿐더러 이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질문들에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 통찰력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이 세 번째 단계의 훈련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무 어렵고 높은 지적능력 수준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스 친구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인데 마치 대학생 이상의 친구들에게나 어울릴 듯한, 좀 과하게 수준을 높여 잡은 훈련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단계와 같은 훈련의 내용을 그들의 거시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의 그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을 함양시키는 단계입니다.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소통하며 통찰력 있는 영향을 끼쳐서 그 왜곡된 것을 변화시키고 그 부러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 상처 난 것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는 바를 왜 믿는지 정확히 알고 내면화(2단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믿는 바를 왜 믿는지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

“해석학적 특권” 개발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전문인 초청세미나로 삶의 성경적 시각 교육

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함께 변화하며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리더십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사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문화적 심지어 정치 경제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 균형 있고 또 분명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는 시점에서 모든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시각을 채 다 소화하지 못할 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단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팎 주위의 목사님들 혹은 잘 아는 근저 학교의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후 이에 대한 팔로움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의 모든 소그룹 모임에는 가능하다면 한두 명 정도의 크리스천리더 대학생 친구들을 패널 혹은 퍼실리테이터로 초청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다 원활한 훈련을 원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나머지 4단계와 5단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주님께 나아오는 자 (마4:23-25)

24절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수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유대인이며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다는 점(마15:26) 등을 들어 예수님은 편협한 민

족주의자요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유대인인든 이방인인든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 병이 가벼운 병이든 불치병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며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 팔복 (마5:1-12)

본문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나라 사이에서 천국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목표를 말씀해주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서 특히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장수, 물질, 건강, 덕, 편하게 죽는 일명 오복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환경이나 소유를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의 상태가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팔복은 서로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8가지 복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수 소금같은 성도 (마5:13-16)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물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아닌 소금같이 되라고 하신 의미는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더러운 곳 추한 곳 잘 맞았는 곳에 녹아들어가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니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처럼 또 주께서 하늘영광을 떠나 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에서 소금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목 율법의 완성 (마5:17-20)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가 정한 규례들을 여러 차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구약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분에 관한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

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계명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금 화목한 예배 (마5:21-24)

본문은 성도들의 이웃과의 삶을 말하면서 교훈하신 것이 예배보다 먼저 화목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르반 제도는 부모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물

질을 드리면 그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막7:11).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예배의 본뜻인 제물이나 봉헌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여과하고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히13:16).

토 죄로부터 결단 (마5:25-30)

29, 30절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세를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를 범하는 그 신체부위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죄보다 의를, 불의보다 진리를, 악보다

선을 불신앙보다 신앙과 순종을 택하는 결단을 수시로 내려야 합니다.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기록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GNTV(www.cgntv.net) 가을 개

편 기독교채널 CGNTV(www.cgntv.net)가 24일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CGNTV는 "이번 개편을 통해 케이블TV와 위성 채널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국내 시청자들과 해외 시청자들의 시청 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편성이 가능해지며, HD 고화질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시청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7가지 성경적 진리를 차세대 지도자 프랜시스 찬과 함께 알아보는 '프랜시스 찬의 크리스천 베이직'과 미국 뉴욕의 리디머(Redeemer)장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 겸 저술가 티머시 켈러의 말씀 강해도 편성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강준민, 유기성, 권성수, 이윤재 목사 등의 말씀 강해와 함께 '존 파이퍼, 리워렌을 만나다' '화요 성령집회 Holy Impact' 등의 신규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만났다. 특히 '존 파

이퍼, 리 워렌을 만나다'는 방송으로 접하기 힘든 두 영적 거장의 만남만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특별 대담 프로그램이다. 24일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칼빈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리 워렌을 만나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크리스천을 양성하기 위해 존 파이퍼, 리워렌, 프랜시스 찬 등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 'Think'를 주제로 29일 저녁 8시의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THINK 컨퍼런스'가 29일 방송됐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명파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학곡동 20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 회: 오전 7:00 새벽 기도 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523-9419, Fax: (02)522-4834 6077 서울시 광진구 백곡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전 9:00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예배) Tel: (39) 06-827-3585, 39-348-339-1726, Fax: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 기도 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630)	벤크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전 7:00 (찬양과 경배) 새벽기도: 오전 6:00(환절기 포함)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 기도 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애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절은)을 위한 찬양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8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예배 포함)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1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4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 (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 요 예 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 의평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5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심 야 기도 회: 오후 8:30 Tel: (011)822-2-027-5511 서울 용인구 계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30)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인곡동 20-3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인현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 요 예 배: 오후 3:00 새벽 기도 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8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 기도 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일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 기도 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비례동 302-67 (140-031)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Higher Calling : 2

더 높은 부르심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사55:6).
살리실 것이며(아5:4),
구하는 것을 찾게해 주실것입니다(마7:7)
청년들이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더 높은 부르심:2”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희민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며 지도자들이
될 젊은이들이 이번 GKYM Vision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변하여
새사람되며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
새로운 비전과 역사관을 가지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기홍목사
은혜한인교회

세계선교마무리와 주님의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24:14)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에
교회가 더욱 집중해야할것은
세계선교입니다. 특별히 GKYM Vision
선교집회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것입니다.



-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5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USD)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USD)
2차 : 12월 11일까지 \$200 (USD)
3차 : 12월 20일까지 \$240 (USD)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Founder of
Cornerstone Church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i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차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
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갈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산협 / 흰돌선교회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중앙일보 /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천신문 / 크리스찬뉴스워크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 | | | |
|--------|-----------------------------|-----------------|
| 명예대회장 | 박희민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 한기형감독(나성동산교회) |
| 대표대회장 |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
| 대회장/강사 | 고승희목사(아름다운교회) | 이성현목사(드림교회) |
| | 김희수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 임현수목사(토론토큰빛교회) |
| | 민중기목사(충현선교교회) | 최홍주목사(에브리데이교회) |
| | 박성규목사(주님세우교회) |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
| | 박성근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 |
| 준비위원장 | 김동환목사(KCCUSA) | |
| 실행위원장 | 김지성목사(글로벌선교교회) | |
| 조직위원장 | 이성우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 |
| 트랙실무책임 | Sam Koh 목사(Hillside Church) | |
| |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 |
| |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 |
| | 박분환목사(아가페선교교회) | |
| | 송병주목사(선한청지기교회) | |
| | 이광길목사(풀리선교대학원) | |
| | 조영영목사(큰빛감리교회) | |
| | 최경록목사(도감사선교교회) | |



www.gkymwest.org